

마흔째 절의 숨겨진 역사 - 스물여덟 번째 수

에스겔 9장

Jeff Pippenger

2026-08-22

영감에 관한 한, 영감에 따르면 “모든 사실은 그 나뭇의 관련성을 지니며,” “모든 원칙은 그 나뭇의 관련성을 지닌다.”

“성경에는 사람이 이 생애를 위하여서든 오는 생애를 위하여서든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 이해해야 할 모든 원칙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존중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성경의 한 구절만 읽어도 그로부터 어떤 유익한 사상을 얻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은 때때로 하거나 단편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그 웅대한 진리의 체계는 성급하거나 부주의한 독자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보화들 가운데 많은 것은 표면 훨씬 아래에 놓여 있으며, 오직 부지런한 탐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 위대한 전체를 이루는 진리들은 ‘조금씩 여기에서, 조금씩 저기에서’ 찾아내고 모아야 한다. 이사야 28:10.”

이와 같이 그것들을 탐구하여 함께 모으면, 그것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들어맞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각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완하며, 모든 예언은 다른 예언에 대한 설명이 되고, 모든 진리는 또 다른 어떤 진리의 전개가 된다. 유대 경륜의 예표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원칙은 그 자리를 가지며, 모든 사실은 그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설계와 구현에 있어서 그 완전한 구조는 그 저자를 증언한다. 그러한 구조는 무한하신 분의 정신 외에는 어떤 정신도 구상하거나 형성할 수 없다.” Education, 123.

사실은 히브리어 표현 “ereb boqer”가 성경에 여덟 번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 8:14에서 “날들”로 번역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저녁과 아침”으로 번역된다. 영감의 말씀에 따르면 14절은 “재림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이다.

다른 모든 성구들보다 무엇보다도 재림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이 되었던 성경 말씀은 곧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선언이었다. [Daniel 8:14.] 각 시대의 대쟁투, 409.

그러므로 사실은, 그 절의 “날들(days)”은 그 히브리어 표현이 사용된 일곱 번 가운데 여덟 번째 때라는 것이다. 그리고 킹제임스 역본의 번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인도의 성경적 현상은, 의도적으로 여덟째 장의 두 환상 가운데 하나를 나타내는 그 절 속에서 일곱 가운데 여덟째라는 성경적 수수께끼를 결부시켰다. 여덟째 장에서 “환상(vision)”으로 번역된 한 단어는 히브리어 “chazon”이며, 다른 하나는 “mareh”이다. “Mareh”는 나타남을 뜻하며, “mareh” 환상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환상이다. 다니엘 8:14의 “mareh” 환상은 그리스도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음을 밝힌다. 이 모든 진리는 사실이며, 그것들은 중심 기둥인 그 절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 기둥은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된 교리나 예언이 아니라, 사실 그 절은 곧

그리스도이며, 중심 기둥이다.

“이와 같은 낙심의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한 꿈을 꾸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고 있는 한 성전을 보는 꿈을 꾸었다. 때가 마칠 때 그 성전 안으로 피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밖에 남아 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었다. 밖에 있는 무리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길로 다니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이 안전의 계획은 교활한 속임수일 뿐이요, 사실은 피해야 할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어떤 이들을 붙잡아 성벽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조롱을 받을까 두려워, 나는 무리가 흩어질 때까지, 혹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너무 늦게 될까 두려워, 나는 서둘러 집을 나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다. 성전에 이르려는 초조함 속에서 나는 나를 둘러싼 무리를 알아차리지도 않았고,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 광대한 성전이 하나의 거대한 기둥에 의해 받쳐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기둥에는 심하게 상하고 피 흘리는 한 어린양이 매여 있었다. 그곳에 있던 우리 모두는 이 어린양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듯하였다.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하였다. 어린양 바로 앞에는 높여진 좌석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매우 행복해 보이는 한 무리가 앉아 있었다. 하늘의 빛이 그들의 얼굴 위에 비치는 듯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들의 음악과도 같은 기쁨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어린양 앞에 나아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이제 어떤 기쁜 사건을 즐거운 기대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다.

“내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였고,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강권받는 듯하였고, 어린양을 마주하기 위하여 기둥 둘레를 돌아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을 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성전이 흔들리며 모여 있던 성도들에게서 승리의 외침이 터져 나왔고, 두려운 광채가 그 건물을 비추었으며, 이어 모든 것이 짙은 흑암이 되었다. 그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그 광채와 함께 사라졌고, 나는 밤의 고요한 공포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마음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잠에서 깨어났으며, 내가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할 수 없었다. 내게는 나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고,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신 것처럼 보였다.” Experience and Teachings, 24, 25.

우리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 그 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칭의의 복을 확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시험을 받고 있다. 성전에 들어오라는 이 마지막 부르심은 우리의 개별적인 입장을 막기 위한 장애물들에 둘러싸여 있으나, 우리가 지금 머뭇거리한다면 우리는 “밤의 고요한 공포 속에 홀로 버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니다.

“날들”이라는 단어의 구별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지극히 중요한 절에 의도적인 강조가 부여되었는데, 그 단어는 여덟이 일곱에게서 난 것이라는 예언적 수수께끼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있는 바퀴들 가운데 하나이다. 인치는 기간에,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프로테스탄트 뿔과 공화당 뿔은 둘 다 여덟째가 일곱에게서 난 것이라는 그 수수께끼를 성취할 것이다. 1989년 끝의 때 이후의 여덟 대통령 가운데서, 트럼프는 여섯째 왕국의 여섯째 왕이 되었고, 그가 두 번째 임기를 획득한 후에는 일곱에게서 난 여덟째가 되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복하는 미국의 행동에서, 십사만 사천의 라오디게아 운동은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이 될 것이다. 인치는 때는 교황권의 치명상이 나음을 받는 일요일 법에서 끝나며, 그리하여 그녀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수수께끼를 일곱에게서 난 여덟째로서 성취한다. 하나의 히브리어 구절로 표상된 한 사실이, 하나의 영어 단어로서,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심판의 시작을 식별하는 절을 심판의 끝을 식별하는 절 속으로 이끈다.

모든 사실에는 그것이 놓일 자리가 있으며, 신약성경에는 한 '수'에 또 다른 '수'를 곱하는 수적 구조의 표현이 오직 하나뿐이고, 구약성경에는 단지 둘뿐이다. 그 '수적 구조'의 알파는 창세기에 있다.

가인이 일곱 배의 보복을 받을진대, 참으로 라멕은 칠십칠 배이리로다. 창세기 4:24.

오메가의 '수적 구성'은 마태복음에 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21, 22.

이 구절들은 성경에서 한 수가 다른 수와 곱해져야 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최초이자 마지막 경우를 나타낸다. 수는 많지만, 창세기의 알파와 마태복음의 오메가는 동일한 수적 구조를 지니며, '일곱'과 '일흔'이라는 동일한 두 수를 사용한다.

알파와 오메가 사이, 곧 그 중간에 이 수적 구조가 존재하는 유일한 다른 곳은 레위기 25장이다. 거기에서 그 두 수는 '일곱'과 '칠십'이 아니라, '일곱 번의 일곱 해'이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곧 일곱 번의 칠 년이라. 그 일곱 안식년의 기간은 네게 사십구 년이 될지니라. 레위기 25:8.

가운데의 수적 구조는 다시 한 번 '칠십'이 아니라 '일곱'이라는 수를 사용한다. 그것이 위치한 본문은 순종에 대한 복을 담고 있으며, 또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도 담고 있다. 종의 해방과 토지의 회복이라는 복은 레위기 26장에서 네 차례 언급되는 일곱 배의 저주와 대조를 이룬다. 그 복에는 토지가 쉬는 해들 동안 주께서 공급하시는 부양과 희년의 해에 베푸시는 갑절의 복이 포함되었으며, 26장의 저주는 이 두 장의 연약적 경고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물이다.

가운데의 수적 구조는 레위기 25장 8절('일곱 번 일곱 해')에 나타난다. 이것은 곧바로 레위기 26장의 네 겹의 '일곱 배' 심판과 짝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의 수적 구조는 축복과 저주를 모두 나타내며, 레위기에서 이중의 증언을 형성한다. 희년의 축복이든 저주이든 그 수적 구조는 라멕의 심판과, 유예 기간의 한계를 밝히신 예수님의 규정 사이에 놓여 있다. 이 셋은 함께 유예 기간의 한계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 기간이 마쳐질

때 한 부류는 복을 받고 한 부류는 저주를 받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와 마지막, 곧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내는 알파와 오메가는 사백구십을 유예 기간의 상징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희년의 저주 혹은 축복과 결합될 때, 에스겔 1장 1절의 연구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그 사실들은 중요해지는데, 그 구절은 에스겔을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의 서른째 해에 위치시킨다.

그 희년 주기는 기원전 573년 10월 22일에 끝났으며, 그것은 1844년 10월 22일뿐 아니라 또한 곧 닥쳐올 일요일 법을 예표하였다.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있으며, 이는 일흔 번째 희년 주기의 마흔일곱째 해이다. 이 희년 주기는 에스겔이 서른째 해에 서 있었던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에 의해 예표되어 왔다. 그는 성전에 서 있었는데, 이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의 충실한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의 끝에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십사만 사천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1장 1절에서 예언적 역사 가운데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그 "사실"을 놓치는 것은, 당신의 "방향 감각"을 잃는 것이다.

그발 강가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본 후, 에스겔은 다니엘과 이사야와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먼지 가운데까지 낮아졌다. 이어 이 네 가지 본보기는 모두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교회에 기별을 전할 자들에게 임하는 기름부음의 요소들을 제시한다.

에스겔서에는 예루살렘을 다루는 여섯 개의 날짜가 있다. 우리는 앞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40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날짜와 마지막 날짜를 다루었다. 나는 8장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날짜도 다룬 바 있으나, 그것을 단지 상징적 표상으로만 다루었을 뿐,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과 관련하여 그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온 책은 바로 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585년 말에 멸망하였다. 그리고 에스겔 33:21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가지고 한 도망자가 도착한다.

우리의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초닷새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나온 자 하나가 내게 이르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더라. 그 도망하여 나온 자가 이르기 전 저녁에 여호와와 손이 내 위에 임하였고, 아침에 그가 내게 이르기까지 내 입을 여셨으므로, 내 입이 열려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더라. 에스겔 33:21, 22.

그 성이 함락된 것은 제십이년이었고, 그때에 이르러 에스겔은 비로소 자기 뜻에 따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에스겔 8장의 환상은 제육년에 있었으니, 이는 그 성이 함락되기 대략 육 년 전이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 달 닷새 날에 내가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여호와와 손이 거기에서 내 위에 임하셨다. 에스겔 8:1.

그 이듬해, 곧 일곱째 해에 장로들이 여호와께 여쭙고자 에스겔을 찾아왔다.

제칠년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여호와께 여쭙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라. 에스겔 20:1.

그 후 아홉째 해에, 일 년 반에 걸친 포위가 시작되었다.

또 제구년 시월 십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날, 곧 바로 이 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바로 이 날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느니라.

에스겔 24:1, 2.

이 날짜들 각각은 마지막 날들의 특정한 이정표들을 나타낸다. 이는 바울이 옛 이스라엘이 세상 끝에 사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일어났으며, 또한 세상의 끝이 이른 우리를 경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1, 12.

예루살렘에 관한 여섯 날짜는 모두 1장 1절의 첫 번째 날짜와 40장 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날짜 사이에 위치한다. 이 두 날짜는 각각 1장의 다섯째 해, 곧 기원전 592년과 40장의 스물다섯째 해, 곧 기원전 573년을 표시한다. 선 위에 선의 차원에서 에스겔은 애굽을 위한 한 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에는 두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한 한 선을 가지고 있다. 애굽의 선에는 일곱 개의 직접적인 이정표가 있으며(두로가 포함될 때), 예루살렘에는 여섯 개가 있다. 이 두 선과 더불어 요시야의 선과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가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날짜 없이 제시된 선은 4장에서 발견되며, 4장의 선은 에스겔이 지성소를 들여다보았을 때 본 그 바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것은 여러 상징적 진리들로 가득 차 있다.

430

사백삼십이라는 수는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며, 에스겔 4장에서 에스겔은 주께서 사용하시는 살아 있는 비유, 곧 사백삼십이라는 수를 포함하는 비유가 된다.

너 인자야, 또 너는 벽돌 한 장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그 위에 그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려라.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고, 그것을 향하여 요새를 세우며, 그것을 향하여 흙독을 쌓고, 진을 치며, 사방으로 공성퇴를 세워라. 또 너는 쇠판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으로 세우고, 네 얼굴을 그 성을 향하게 하라. 그 성이 포위될 것이며, 네가 그것을 포위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표징이 되리라. 너는 또 네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그 위에 담당하라. 네가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의 햇수를 날수대로 네게 정하였음이니, 곧 삼백구십 일이라. 그리하여 네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것을 마치거든 다시 네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사십 일 동안 담당하라. 내가 하루를 일 년으로 네게 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루살렘 포위를 향하여 네 얼굴을 고정하고, 네 팔을 걷어 올리며, 그것을 향하여 예언하라. 보라, 내가 네게 줄을 매리니, 네 포위의 날들을 마치기까지 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몸을 돌리지 못하리라. 에스겔 4:1-8.

에스겔이 묘사한 바 예루살렘의 포위는 “징조”이며, 이는 기원후 66년에 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가져온 포위와도 같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화잇 자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성취가 마지막 날들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느부갓네살과 케스티우스로 표상된 두 증인 위에 임한 멸망의 징조는, 그 포위의 징조가 곧 다가오는 일요일 법의 징조임을 밝혀 준다.

하루를 일 년으로 하는 법칙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또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기초적 운동 가운데서 윌리엄 밀러의 예언 해석의 으뜸 규칙에 대한 오메가적 성경적 언급을 본다. 하루를 일 년으로 보는 원칙의 알파 역시 오메가의 상징이었으니, 이는 하루를 일 년으로 보는 원칙의 알파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열째이자 최종적인 시험으로 제시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광야에서 죽음을 스스로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너희의 음행을 담당할 것이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리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 곧 사십 일의 수대로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사십 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 너희는 나의 약속을 거두어들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나를 거슬러 함께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민수기 14:33-35.

홍해를 건넌 때부터 시작되는 열 단계의 시험 과정에서 최후의 반역 가운데 하루를 일 년으로 하는 원칙이 제시되었다는 예언적 함의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되려 할 때 동일한 원칙이 다시 선포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본문에 반드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포위"가 곧 "표징"이라는 점의 중요성도 그러하다.

예루살렘의 "포위"를 표징으로 사용할 때 함께 모아지는 역사의 계보는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말하자면 하나의 "축"이 되며, 비유적으로 포위의 표징에는 많은 바퀴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포위의 표징은 아마도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며, 그 표징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하여금 처음에 에스겔에게 혼돈으로 보였던 것에서 완전을 이끌어 내게 한다. 포위의 "표징", 일 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원칙, 그리고 포위로 말미암아 함께 모아지는 예언적 계보들은, 사백삼십이 영원한 언약을 대표한다는 맥락 안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언약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분명히 알라. 네 자손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창세기 15:13.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였으며, 그 세 단계 가운데 첫 번째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백 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가 되리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할례의 예식을 받았고, 세 번째 단계는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희생이었다. 사백 년은 주께서 택하신 한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데 취하신 세 단계의 알파에서 제시되었다. 그 택함받은 언약 백성은 서기 34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하였으며, 그 후 이방인들에게 택함받은 사도 바울은 그 사백 년을 곧 사백삼십 년으로 밝혔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은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나니, 그리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느니라. 창세기 3:17.

언약을 나타내는 수는 사백삼십이지만, 아브람과 사울이라는 두 증인은, 각각 그들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바울로 바뀌었는데, 사백삼십이라는 전체 수를 이루는 서로 구별되는 두 시기를 밝혀 준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이름을 바꾸실 때, 그것은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사백삼십 년은 서로 구별되는 두 수의 더함으로 산출되는 합인데, 곧 아브라함의 사백과 바울에게 더해진 삼십과 같다. 에스겔은 삼백구십 일 동안 그의 왼쪽으로 누웠고, 그 후 사십 일 동안 그의 오른쪽으로 누웠으니, 그 합계가 사백삼십이 되는 두 수를 밝혀 준다.

창세기 11장에서, 홍수 직후 님롯의 반역을 통하여 초래된 죽음의 언약은 두 언약 사이의 구별을 드러낸다. 바벨탑의 요소들은 심판을 받고 흩어져야 했던,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사탄적 언약 백성을 증언한다. 같은 장에서 히브리인의 계보는 에벨의 출생으로 시작되어 소개되며, 이는 님롯의 죽음의 언약과 대조되는, 생명의 언약을 대표하도록 택함받은 한 백성의 시작을 표시한다.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사백삼십 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더라. 창세기 11:16-18.

창세기 10장에서 에벨과 벨렉이 처음 언급된다.

에벨에게도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벨렉이었고, 이는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욱단이었더라. 창세기 10:25.

벨렉은 분열 혹은 나뉘음을 의미하며, 벨렉의 시대에 언약 백성의 두 부류의 분열은 바벨탑의 역사와 님롯의 반역으로써 표지된다. 에벨은 사백육십사 세를 살았으나, 벨렉(분열)이 난 후에는 사백삼십 년을 살았다. 모든 사실에는 각각 그 의의가 있으며, 사백삼십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언약 예언에 부여한 수이다. 비록 사백삼십이라는 수가 벨렉의 출생 이후 에벨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으나, 그의 생애의 처음 삼십사 년은 "사 년과 삼십 년"으로 표현되니, 이것은 물론 삼십사 년이지만, 그 삼십사 년의 단순한 표현을 따르면 "사"와 "삼십"(430)으로 읽힌다. 그 뒤에 사백삼십이 나오고, 이어서 벨렉의 생애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은 "삼십"이다.

에벨은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어근이며, 언약의 택하신 백성이 될 히브리인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에벨은 '건너가다'라는 뜻으로,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땅에서 새 땅으로 건너가는 언약 백성을 예표한다. 사십 년간의 광야 방황은 그 건너감을 지체시켰으나, 사십 년의 끝에 그들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니,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건너감을 예표하였다. 벨렉은 님롯의 탑에서 인류가 두 언약 백성으로 처음 나뉘게 된 역사를 나타낸다. 님롯의 사망의 언약의 상징은 혼잡이며, 히브리 생명의 언약의 상징은 벨렉으로 상징되는 분열 이전 에벨의 생애 사백삼십 년이다. 벨렉이라는 이름은 또한 상징적인 수적 진리를 나타내는데, 에벨의 사백삼십 년은 두 수로 나뉘며, 벨렉은 사백이라는 수와 삼십이라는 수의 구별을 나타낸다.

사백삼십에는 두 부분이 있다. 곧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사백 년과, 바울에 의해 지적된 추가적인 삼십 년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부흥을 산출하는 지식의 증가가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나는데, $\omega\iota\upsilon\nu\kappa\eta$ 영원한 언약의 두 부분으로 된 상징이 특별히 밝혀지며,

그것이 9절/11절에 제시되어 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고 연단을 받으려니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한 자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이 있으리라. 다니엘 12:9-11.

열째 절에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만들며 연단을 받게 할 것이라”로 표상된 삼중의 시험 과정을 산출하는 최종적인 개봉은 천이백구십 년과 연관되어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선구자들의 이해는, 508년에 이교주의의 저항이 제거된 것이 삼십 년의 과정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은 538년에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으로서 교황권이 세워지는 데 이르렀으며, 그 후 교황권은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으로서 천이백육십 년이 1798년에 끝날 때까지 통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삼십 년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에 의하여 “먼저 배도하는 일”로도 표상된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다루는 주제는 각각 예언의 넷째와 다섯째 왕국인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사이의 관계이다. 윌리엄 밀러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장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것”이 이교 로마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더 나아가 다니엘서의 “매일 드리는 것”이 언제나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또는 황폐하게 하는 범법과 연관되어 제시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과 황폐하게 하는 범법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각각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라고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밀러는 그의 예언적 적용의 대부분을, 아니 전부를, 두 황폐케 하는 세력에 대한 그의 식별 위에 두었다. 그 두 세력은 곧 “매일”로 표상된 것(이교 로마)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둘째 황폐케 하는 세력, 곧 황폐하게 하는 범죄(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우상(교황권적 예언 구조)으로, 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태양 숭배)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로 표현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이 제시한 내용으로부터 밀러가 얻은 이해는, 재림신앙의 기초를 상징하는 밀러에게 있어 주요한 기초적 이해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제시된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강력한 미혹을 받는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다니엘의 세 절(다니엘 12:9-11)에서 마지막 날들의 상징적 이해는 시간의 적용을 포함할 수 없는데, 이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예언적 시간의 적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9/11의 절들은 각각 삼십 년과 천이백육십 년의 두 구별된 기간을 나타낸다. 사십이라는 수와 천이백육십이라는 수는 둘 다 예언적 광야의 상징이며, 예언적으로 상호 치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이백육십은 사십으로 이해될 수 있고, 사십은 사백의 십일조이다. 9/11의 절들은 삼십(바울)과 연결된 사백(아브라함)으로 표상되는 영원한 언약의 수를 상징한다. ‘천이백육십’으로 표상되는 ‘광야’는 ‘사십’의 ‘광야’와 일치하며, 사는 사백의 십일조이다. 삼십은 삼십이다. 사백삼십은 사백이라는 수에 삼십이라는 수를 더함으로써 산출되며, 이것은 에스겔 4장에서 삼백구십에 사십이라는 수를 더한 것으로 표상된다.

12장의 9/11 절은 그 장에 제시된 세 예언적 기간 가운데 중간을 나타내며, 그것들은 마지막 날들에 개봉되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다. 마지막 날들에 사백삼십의 의미가 개봉되는 일은 에스겔 4장에서 이루어진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이제 에스겔과 요한과 다니엘과 이사야와 함께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개봉하고 있다. 그 진리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로만이 아니라 십사만 사천의 기치로도 표상된 자들을 들어 올리시는 일과 결부되어 열려진다. 그 진리는 아브라함의 사백 년으로 표상된 언약과 바울의 삼십 년으로 표상된 언약이 서로 연관되는 문맥 속에 놓여 있다. 그 진리는 세 개의 상징적 기간의 한가운데를 나타내는 다니엘 12장의 9/11절들에서 제시되며, 그 기간들은 밀러파가 올바르게 이해하였던 것이다. 다니엘 12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그 가운데의 9/11 진리는 에스겔의 삼백구십 일과 사십 일로 표상된다. 그 날들은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의 서른째 해에 에스겔에게 열려지며, 제사장인 에스겔은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중간 시험에 있는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 직분을 표상한다.

에스겔은 “넷째 달” “닷새”에 성전 시험 가운데 표를 받는데, 이것은 밀러파의 역사에서 1844년 4월 19일 첫 번째 실망으로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22일에 끝난 일곱째 달들의 정확한 한가운데(“중간 지점”)를 표시하였다.

“1844년 여름, 2300주야가 끝날 것이라고 처음 생각되었던 시점과, 후에 그것이 연장되는 것으로 밝혀진 같은 해의 가을 사이의 중간 무렵에, 그 기별은 성경의 바로 그 말씀으로 선포되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8쪽.

1844년 7월 21일은 일곱 거룩한 달의 한가운데였으며, 그 날짜에 새뮤얼 스노우는 보스턴 태버내클에서 그의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별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공개적인 제시 가운데 처음으로 “성경의 바로 그 말씀으로 선포하였다. ‘보라, 신랑이로다!’” 우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보스턴 태버내클에서 에스겔과 함께 서 있으며,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사자들이 밀려오는 큰 파도처럼 나아가기 직전에 있다. 기를 들어 올리는 예언적 과정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슬람의 예언적 계보 속에 표상되어 있다. 에스겔 4장은 둘째 증인을 제공하며 삼백구십일 년 열다섯 날의 그 예언의 결론을 제시하는데, 그는 그것을 4장에서 그렇게 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내용을 계속 다루겠다.